조선일보 - 1929 . 10. 12/ 4면/ 1단

非 唯物的 哲學觀(五)

裴相河

어린 아희가 비로소 母胎를 벗어나 쌍 우에 썰어저 나올 쌔 울지안는 아희라고는 하나도 업슬 것이니 이 울음을 어써케 解釋하여 볼싸? 吾人은 區區히 生理學的으로 엇더타 엇더타는 適確한 科學的 解答을 돌이어 실혀한다. 그양 詩的 直觀的으로 人生 苦의 첫 길을 밟으면서 하도 긔가 막혀서 하늘을 처다보고 慟哭하는 것이라고 誇張하여 준들 엇더냐?

우리가 엇써한 괴롬을 가졋슬 쌔 다 가튼 괴롬을 가진 다른 사람의 하소연을 들으면 거긔에 同情이 生기며 慰安을 엇게 된다. 寡婦事情은 寡婦야만 아는 것이니 以上의 論述을 뒤집어 보면 寡婦가 안이고는 徹底히 寡婦事情을 모르는 것 가티 人生 苦를 하소연하는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우림으로써 거긔 對한 同情의 感興이 生긴다고 할 것 가트면 곳 우리도 또한 쏙가튼 人生 苦를 늣기고 잇다는 事實이 證明되고말 것이다. 그런데 『쇼팬하웨르』의 厭世哲學이라든지 또는 『데오니스』의 『이 世上에 生겨나지 안는 것 쓰거운 太陽의 빗을 보지 안는 것이 人生에게 가장 큰 幸福이다. 그러치만 만일 不幸이 生겨낫거던 될 수 잇는대로 쌀리 저 生의 門을 지나 大地란 두터운 니불 미테 잠드는 것이 조타』고 한 것이라든지 『쏘파클레스』의 『全然히 生겨나지 안는다는 것이 形言할 수 잇는 엇던 일보담 더 나흔 일이다. 그러나마 不幸히 太陽의 비출 보게 되엇거든 自己가 生겨난 그곳으로 될 수 잇는대로 쌀리 돌아감이 둘재로 조흔 일이다』라고 한 것이든지 또 『유리피쎄스』의 『人生이란 生겨나지 안는 것이 生겨나는 것 보담 낫다』 等의 노래를 들을 쌔에 우리는 우리들의 가슴 깁히 그것은 그네들 샌의 노래가 아니오, 곳 우리들의 노래로라는 感興을 禁치 못할 것이니 그네들이 갓고 잇는 쏙가튼 人生哲學을 우리도 또한 늣기고 잇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가튼 避할래야 避할 수 업는 人生 苦 卽 宿命的 心的 苦痛으로 말미암아 消極的인 넘우나 消極인 徹底한 厭世觀이 곳곳마다 슨임업시 生겨남도 無理는 아니다. 녯날 希臘에서도 太陽이 내려 쪼이는 모든 人生은 누구든지 누구든지가 不幸하고나와 가튼 노래가 불려졋스며 『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라』란 우리 朝鮮의 類撥的 俗謠도 업서지지 안코 잇다. 그럿치만은 吾人은 이러한 消極的 厭世觀 外에 될수 잇는 대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人生 苦를 除免하여 보자는 積極的 努力도 잇슴을 니저서는 아니 된다. 卽 이것을 歷史 上으로 볼지라도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宗敎 處世哲學의 存在가 全然 업서진 때는 업다. 『에덴』東山서 쏫겨나는『아담, 이-부』의 괴로움이 업섯든들 生老病死란 人生不可避의 四大苦痛이 업섯든들 耶蘇敎도 生기지 안헛슬 것이며 佛陀의 誕生도 업섯슬 것이다. 이와 가티 人生 苦 卽 先天的 心的 苦痛은 吾人으로 하여금 絶望的 類撥的 詩歌를 불르게 하는 反面에 積極的 樂天的 宗敎를 맨들게 한다. 勿論 어써한 宗敎가 生겨남에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잇겟지만은 其中 가장 根本的인 原因은 그 時代一般의 民心이 얼마나 徹底히 人生 苦를 늣겻느냐 하는데 잇다고 미더도 無妨하다고 筆者는 밋고잇다. 그리고 筆者는 以上의 論述한 바와 가티『人生은 누구든지 人生 苦를 가졋다』하는 前提를 樹立하엿고여긔서 그럼으로人生은 누구든지 人生 苦의 調除法 卽 宗敎를 찻게 된다』는 結論을 잇그럿치만은 여기에 吾人은 적지안흔 疑問을 禁치 못하게 된다. 卽 以上의 論法을 反駁하기 爲하야『모-든 人生은 人生 苦를 가졋슴으로 宗敎를 찻게 된다. 그럿치만은 이를 뒤집어 보아서 萬若 宗敎를 찻지 안는 사람이 잇다면은 그 사람은 人生 苦를 갓지 안는 사람이니 모든 人生은 人生 苦를 가졋다는 前提는 矛盾이 될 것이다.

그런데 事實을 보면 宗敎를 갓지 안흔 사람이 만타 그럼으로 모-든 人生은 人生 苦를 가젓슴으로 宗敎를 찻게 된다는 前提는 矛盾이다. 이런 詭辯이 成立될 듯한 可望性이 퍽도 만흔 것 갓다. 그러치만은 이와 가튼 詭辯은 瞬間 사람의 눈을 속이려는 詭辯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진다는 것과 늣긴다는 것을 混同함에서 닐어나는 過誤에 지나지 못한다. 勿論 宗敎를 갓지 안흔 사람이 만흠은 事實이다. 더구나 每日 煩雜한 物質文化의 威脅에 쏫기고 잇는 現代人으로서는 自己自身에 기피 沈潛하야 自己內部에 무엇이 잠겨 잇는가를 省察할 餘裕를 엇지못하고잇는 사람이 퍽도 만타 다시 말하면 그네들 가슴에 가장 깁숙한 곳에 쑤리기피 박혀잇는 人生 苦를 徹底히 늣기지 못하고 지나가버리고 만단 말이다. 設或 暫時 동안 늣기는 때가 잇다 드래도 그 다음 瞬間에는 그만 物質이란 外的 存在에 全心이 쏠려지고 만다. 이와 가티 어느 사람이든지 人生 苦를 갓기야 하엿지만은 自己를 省察하지 못함으로써 自己가 갓고 잇는 人生 苦를 늣기지 못할 싸름이다.